

## 회장염 예방의 핵심은 방역 ... 질병의 농장 침입 막아야

- 장내 유익균 관리가 예방에 도움 ... 적절한 유산균 제제 사용 추천
- 농장에 상재하는 질병을 정확히 모니터링하여 알맞은 투약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국내 양돈농장의 회장염 관리 포인트' 웨비나 방영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사장 서승원)이 지난 7월 12일 '국내 양돈농장의 회장염 관리 포인트' 웨비나를 방영했다. 이날 연자로 초청된 고상익 수의사는 현재 발라드동물병원 원장이자 (사)한국양돈수의사회 학술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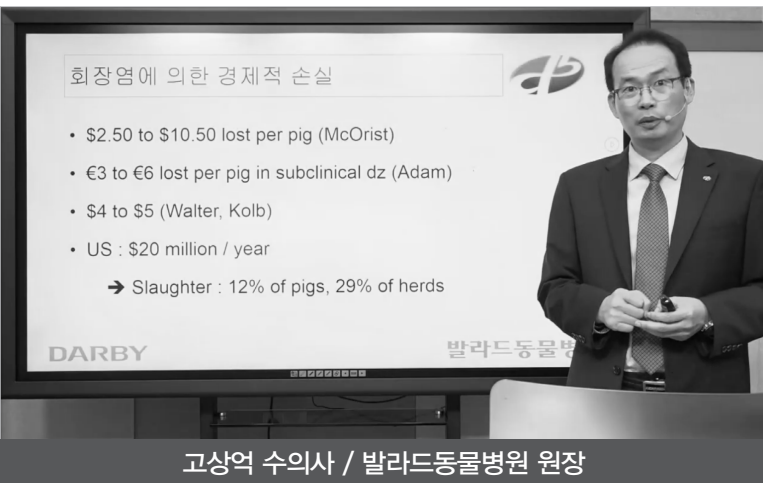
양돈수의사·업계관계자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웨비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고상익 수의사의 회장염 강의 중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고상익 수의사는 '회장염의 특징과 국내 회장염의 역학'을 주제로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회장염 발생 양상과 원인을 살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주제 발표 이후 '실시간 생방송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참석자들이 직접 연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기회가 됐다. 이어 두 번째 강의는 8월 9일 '현장 경험을 통한 효과적인 회장염 관리 프로그램' 주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 회장염의 특징 및 국내 현황

회장염은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Lawsonia intracellularis*)라는 단일 병원체에 의해 유발된다. 감염 후 7~14일 정도에 균 배설을 시작하여 약 2~3주가 지나면 항체가 양성으로 전환된 후 6~14주 정도 증상이 지속된다. 회장염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감염일령이 늦을수록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수가 적고 무증상 상태이며, 둘째로 노출되는 회장염 균의 양에 따라 임상증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회장염은 임상증상에 따라 병명이 달라진다. 급성으로 회장 내 다량의 출혈과 혈변을 보이는 PHE(돼지출혈성장염)가 있고, 만성으로 설사·일당증체량 감소·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피해를 끼치는 NE(괴사성장염), PIA(증식성회장염) 등이 있다.

회장염의 주요 전파 경로는 분변이다. 로소니아는 분변 속에서 2주간 생존할 수 있으며, 적은 용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장화를 통해 질병이 쉽게 전파되며, 사육밀도·연속사



육 등 돼지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시 다발한다.

■ 항생제 사용의 제한 · 감소가 원인  
 … 국내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도 회장염은 지속적으로 농장에 존재했으나 배합사료에 첨가되어 왔던 25종의 동물용의약품 항생제가

2012년 완전히 사용이 금지되면서 회장염이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2018년 강원대학교 오연수 교수팀이 46개 농장을 대상으로 회장염 감염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의 농장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혈청 전환은 40%, 음성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장염은 위생 수준이 높은 농장, 종돈장, PS농장이지만 특징적인 유해 질병이 없는 농장에서 일차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항생제 사용량이 적고, 다른 질병이 없는 농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질병이 회장염인 만큼 약제를 적게 사용하고, 환경관리가 잘 되는 농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유산균 제제 등으로 장내 유익균 관리해야 … 야생 동물 컨트롤도 중요

이날 진행된 ‘실시간 생방송 질의응답’에서 고상익 수의사는 회장염 예방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제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일반적으로 장내 정상 세균총이 깨지면 회장염뿐만 아니라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여러 가지 질병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장내 유익균 관리가 회장염 예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농장 내 야생동물 컨트롤이 회장염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염이 농장에 상재하는 쥐에 감염된다면 쥐에 의해 돼지가 감염되는 순환 감염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야생 동물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익 수의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라며 “새로운 질병이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 농장에 상재하는 질병에 대해 정확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일령, 어떤 단계에 질병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 알맞은 투약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정리 / 박지아 기자】